

한일 재무당국, 양국간 직원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제고

- “제2차 한일 재무당국간 단기 직원교류 프로그램” 개최

기획재정부와 일본 재무성은 5.28(수)~5.30(금) 3일간 한국에서 직원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. 동 프로그램은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*시 합의한 양국간 협력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일본 재무성 주최로 처음 시행되었으며,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다.

*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(‘23.6.29일, 일본 도쿄) 공동보도문: 양국 장관은 상호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와 양국 직원들 사이의 교류도 증진될 수 있도록 양 부처간 단기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.

이번 행사는 기획재정부 주최로 양국 재무당국에서 예산·세제·국제금융 등을 담당하는 실무자*들이 참석한다. 이들은 기획재정부 방문을 시작으로 대외경제연구원, 재정정보원 및 민간기업 등을 함께 방문하여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한일 재무당국간 상호 이해를 제고할 계획이다.

* 日 재무성 기초·예산·세제·관세·국제·국고 담당자 등 9명, 기획재정부 예산·세제·정책·국제·재정 등 담당 실무자들 참석

기획재정부는 금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다양한 직급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, 양국간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국제금융국	책임자	과 장	심승현 (044-215-4830)
	금융협력과	담당자	사무관	정민종 (belljeong@korea.kr)